

권필과 이안눌의 교유와 문학 활동

구본현(홍익대)

1. 서론
2. 교유의 배경과 양상
 - 2.1. 교유의 배경
 - 2.2. 생애와 교유의 양상
3. 作詩의 태도와 典範의 수용 양상
4. 결론

1. 서론

한문학사에 있어서 ‘穆陵盛世’라는 말은 수많은 문인들이 簇出하여 높은 문학적 성취를 이룬 시기를 가리킨다. 목릉성세의 특징을 단적으로 일컫는 말은 ‘復古’와 ‘盛唐’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盛世’라는 말에는 뛰어난 문인들이 서로 경쟁하고 격려하며 文運을 진흥하였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복고’와 ‘성당’만을 강조한다면 ‘盛世’라는 말의 다양한 함의를 놓치기 쉽다. 다양한 풍격과 수법이 시험되는 경쟁 속에서 높은 수준의 詩文이 산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權鞬과 李安訥은 목릉성세의 가운데에 놓여 있다. 앞으로는 湖蘇芝와 三唐詩人, 崔岾 등이 있고 뒤로는 張維, 李植, 鄭斗卿 등이 문단을 수놓았다. 권필과 이안눌은 평생 절친한 친구였는데 둘의 友誼만큼이나 시도 높이 평가되었다. 둘의 시에 대해서는 우열을 논한 경우도 있고 詩風의 상이함과 작법의 차이를 논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목릉성세를 ‘복고’와 ‘성당’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야 할 필요성을 방증한다. 권필과 이안눌의

시 역시 ‘복고’와 ‘성당’의 특징을 보이지만 그 내질과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권필과 이안눌의 교유양상과 문학 활동을 연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권필과 이안눌이 매우 절친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유관계를 자세하게 검토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유는 말 그대로 사귀며 노는 것이지만 물질적, 정신적 가치를 교환하는 실천적 행위이기도 하다. 서로 동일한 배경을 지니고 있어서 교유가 시작되지만 자신에게는 없는 가치를 상대에게서 발견하고 그것을 서로 교환할 때 우의가 깊어진다.

권필과 이안눌의 교유양상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앞서 말한 대로 권필과 이안눌의 교유와 생애를 점검하는 것은 이들이 보여준 문학적 동질성과 상이성을 점검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둘째, 권필과 이안눌은 젊은 시절부터 시로 이름이 높아 주위에 수많은 문사들이 운집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교유와 문학 활동에 대한 검토는 목릉 문단의 형성과 전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유의 양상에 대한 실증을 넘어서서, 교유의 의미와 그것이 문학 활동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해석으로 나아가야 한다. 목릉성세는 말 그대로 수많은 문사들이 복잡한 인연으로 얽혀 있는 시기이며 이들의 문학 활동이 교유양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교유의 배경과 양상

2.1. 교유의 배경

권필(1569~1612)은 이안눌(1571~1637)보다 두 살이 많다. 권필은 이안눌을 가리켜 情誼가 두터운 유일한 친구라 하였고¹⁾ 이안눌은 권필을 同心

1) “平生故舊誰憐我，晚歲情親獨有君.”(권필, <子敏詩卷中, 有在嶺北相憶之作, 因次其韻>, 『石

友이자 세상에 하나뿐인 친구로 여겼다.²⁾ 둘의 교유는 권필이 詩禍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줄곧 이어졌으며 권필의 사후 이안눌은 매년 권필의忌日에 시를 지어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이들과 함께 젊은 시절부터 從遊한 동년배로는 趙緯韓(1567~1649), 具容(1569~1601), 許箴(1569~1618), 任鏞(1560~1611)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이안눌과 구용이 가장 먼저 서로를 알았던 것 같다. 이안눌과 구용은 서로 인척이기 때문이다. 이안눌은 12세에 큰아버지 집안으로 出系하였는데 養母가 능성 구씨이다. 具壽永이 이안눌 양모의 증조부이자 구용의 증조부가 된다. 때문에 이안눌과 구용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³⁾

마찬가지로 권필과 이안눌이 서로를 알게 된 것도 매우 이른 시기로 보인다. 이안눌의 행장에 의하면 1588년 가을에 停擧를 당한 뒤, 鄭碯을 따르며 권필과 교유했다고 한다. 그러나 권필의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의 교유는 이보다 빠르다. 권필이 1611년에 쓴 시에 이안눌과 교유한 것이 30년이 되었다는 말이 보이므로⁴⁾ 이미 십대 초반에 서로를 알고 있었던 셈이 된다.

한편 허균의 아버지 許曄과 권필의 아버지 權擘은 친구 사이였다. 허균은 8, 9세 때에 허엽을 찾아 집에 들른 권벽을 구석에서 본 적이 여러 번이었다. 따라서 허균과 권필이 어려서부터 서로를 알고 지냈을 가능성이 있다.⁵⁾

교유가 깊어지고 지속되려면 좋아하는 것이 같고 사는 곳이 가까워야 한다. 이들이 절친하게 교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모두 어려서부터 詩文에 재주를 지니고 있었고⁶⁾ 술을 매우 좋아하였으며⁷⁾ 사는 곳도 매우 가까

洲集·別集(총간 75) 권1, 110d면)

- 2) “惟有同心人，心同終不移。”(이안눌, <別權汝章> 제4수, 『東岳集』(총간 78) 續集, 537c면); “四海一知己，永嘉權夫子。”(이안눌, <別權汝章> 제2수, 『東岳集』 續集, 537c면)
- 3) 한편 구용의 외조카인 沈光世는 이안눌의 재종질인 李植의 매제이다. 이러한 인척관계로 구용의 아버지인 具思孟의 문집 『八谷集』을 이식이 편집하기도 하였다.
- 4) “結交三十載，心地鉏鋤岳。”(권필, <送李錦山子敏之任>, 『石洲集』 권1, 17a면) 이안눌이 금산군수로 부임한 것은 1611년이다.
- 5) 허균, <習齋先生詩集後序>, 『惺所覆韻稿·說部·二』 권23(惺翁識小錄·中) 참조. 허균은 권필의 형인 權翰과 同榜이기도 하다.
- 6) 권필은 7세에 시를 지을 줄 알았고 이안눌 역시 10세 때 이미 시를 지어 친구들과 함께 수창한 것을 십여 권으로 묶을 정도였다. 허균은 12세부터 글을 짓기 시작하였다고 자술한 바 있다.
- 7) 권필은 술을 ‘亡兄友’라 여겼고 이안눌은 병 때문에 며칠째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

왔기 때문이다.

권필이 태어나 자란 곳은 西江의 玄石村이다. 이안눌은 서대문 밖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12세에 出系하여 거처가 바뀌었다. 이안눌이 출계한 집은 대단히 부유하여 한양과 근교에 田庄과 別業이 많았다. 그 유명한 남산의 東園 이외에도 臺山(지금의 신천 부근), 楊州 海村(지금의 수유리)에도 전장과 별업, 선영 등이 있었고 西江에도 정자가 있었다.⁸⁾ 조위한의 집 역시 서강 북쪽 언덕에 있었고 임전은 龍山 靑坡에 살고 있었다.⁹⁾ 이들이 주로 교유한 장소는 서강과 용산, 남산이었으며 때로는 구용의 별업이 있던 楸子島와 건너편의 대산 별업에서도 노닐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건 이외에도 이들의 집안이나 사회적 처지가 비슷하다는 공통점이 배경으로 존재하였다. 권필과 이안눌은 모두 文名이 높은 가문 출신이다.¹⁰⁾

권필은 安東 權門 출신으로 權溥, 權近의 후손이다. 아버지 權擘은 申光漢에게 시를 배웠으며 문장이 뛰어나 제술관, 사관 등을 지냈고 실록의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이안눌 역시 문장과 덕행으로 이름난 李宜茂의 玄孫이자 시에 있어서 조선 제일이라 칭송받은 李荇의 曾孫이다. 허균의 집안 역시 두 딸이 필요 없는 명문가였고 구용도 왕실과 인척을 맺은 綾城 具門 출신으로 당대에 문명이 높았던 具思孟이 부친이다.

한편 권필과 이안눌은 자기 가문의 명성이 쇠락해간다는 위기의식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덕수 이문은 이행의 뒤로 벼슬에 오르지 못하였다. 이안눌의 조부와 부친은 모두 출사하지 못하였으며 가학만을 전수하였다. 이안눌의 생부가 이안눌에게 출사를 거듭 종용한 것으로 보아 가문의 중흥을 절실히 고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안눌은 출계한 후에 고조인 이의무와 증조인 李芾의 제사와 함께 연산군의 제사도 이어받게 되었다. 이안눌의 양모가 이안눌의 외조부인 具滄의

위하며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8) “余家亭子在玄石江.”(『東岳集』, 44b면) 이 정자가 兩宜堂인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지는 않다.

9) “任君鍊寬甫家在靑坡, 故云城南, 趙君緯韓持世, 賃居西江北岸上.”(이안눌, <客裏逢佳節(三月三日作)> 제2수의 협주, 『東岳集』 권1(北塞錄), 17a면)

10) “公幼有異質, 自學語, 卽曉文字. 晨夕吾伊, 絕不爲兒戲, 巖然如長者. 進士公提抱教肄.”(이식, <行狀>, 『東岳集·續集』附錄, 562c면)

재산과 제사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구엄은 연산군의 외손자가 된다. 그런데 이기는 윤원형과 함께 1545년(명종 즉위년)에 을사사화를 일으킨 주역이다. 선조가 즉위하면서 이기의 모든 勳祿이 박탈되었고 사회의 피해자는 모두 伸冤되었다. 게다가 이안눌의 외할아버지인 구엄 역시 평판이 좋지 않았다. 실록에는 구엄이 부녀의 겁탈을 방조하고 불경하게 임금의 壽를 점치는가 하면 재산을 이용해 權要에게 아부한 사례가 여럿 소개되어 있다. 당연히 이안눌에게는 이런 배경이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행장> 등에는 이안눌이 나라에서 제일이었던 외가의 재산을 오히려 곤욕스러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권필 역시 마찬가지였다. 권필의 조부는 김안로의 뜻에 거슬러 도망치듯 서강에 터를 잡게 되었고 권필의 부친인 권벽에 이르러서는 窟路에 염증을 느껴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하기에 이른다.¹¹⁾ 권벽은 계속 窟路에 몸을 담기는 하였으나 공무 이외에는 글을 읽고 시문을 짓는 것으로 소일하였다. 선조가 이를 높이 사서 권벽을 크게 쓰고자 하였으나 當路에 있는 이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곧 권벽은 정치적 수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마땅하지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권벽의 처세관은 당연히 여섯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권필 형제는 모두 출사에 미련을 버리거나 미관말직에 그쳤다. 정치현실에 대한 회의와 불만이 암암리에 집안의 분위기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조위한 역시 마찬가지였다. 漢陽 趙門인 조위한의 증조 趙邦彦은 대사간, 대사헌 등을 거쳐 예조참판까지 지냈으나 1532년에 沈貞의 일당으로 몰려 賜死되었다. 이후로 가문이 영락하여 조부 趙玉은 현령에 그쳤으며 부친인 趙揚正은 아예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조위한 역시 여러 차례 응시하였으나 번번이 낙방하였고 1609년 마흔셋이 되어서야 겨우 문과에 급제하였다. 임진 역시 과거와는 인연이 없어 참봉, 제술관에 그쳤고 나중에는 아예

11) 권벽과 절친했던 安名世와 尹潔이 춘추필법의 直筆로 을사사화의 내막을 기록한 <時政記>를 썼는데 나중에 이것이 사단이 되어 1548년에 이기의 주도로 죽임을 당하였다. 이 사건으로 권벽은 교유를 끊고 제사를 말하지 않게 되었다. 선조가 즉위한 후 이기의 훈록이 모두 삭탈되고 안명세와 윤결은 신원되었다. 출계한 이안눌의 증조부인 이기와 권필의 부친인 권벽은 어찌 보면 원수지간인 셈이다.

벼슬에 대한 관심을 끊어 버렸다. 조위한과 임전은 임란이 일어나자 의병으로 활약하여 공을 세운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는 이들을 써주지 않았다. 허균과 구용만이 이른 시기에 出仕하였는데 허균은 경망한 처세로 승침을 반복하였고 구용은 이른 시기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구용이 출사한 이유도 가난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이 이들의 교유에 동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즉 명문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이목이 그리 곱지만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부담과 반발이 동시에 작용하였을 것이다. 권필과 이안눌이 서로를 더욱 가깝게 여기게 된 계기는 과거에의 실패였다. 권필은 1587년에 글자 하나를 잘못 썼다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었고 이안눌은 1588년에 같이 응시한 자가 뜬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殿試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 사건의 내막은 자세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저간의 사정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세상과 자신이 어울릴 수 없음을 일찍부터 알았다. 때문에 권필, 이안눌, 조위한 등은 모두 서인 집안 출신이었으나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았다. 동인 가문 출신인 허균과 매우 가까웠다는 사실이 단적인 증거이다. 권필은 儒者의 행적을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안눌 역시 젊어서의 교유에 구별이 없어서 세간의 따가운 지목을 받았다.

이들의 교유 배경에는 처지가 비슷하다는 동질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이들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였다. 권필과 조위한은 술에 취하면 말이 자못 방달하여 꺼리는 바가 없었다. 이에 비하면 이안눌은 다소 신중한 편이었고 구용은 말수가 적고 항상 침착한 태도를 보였다. 각기 다른 성격의 인물들이 서로의 장단점을 통해 격려하고 경쟁하면서 교유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다.

이들은 성격이나 문학관 등에 있어서 상이한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권필은 당송을 아울러 시를 배웠고 만당풍까지도 배우고자 노력하였다. 반면에 이안눌은 한유와 두보를 통해 성당의 영역에 들고자 하였고 조위한과 임전은 보다 복고에 적극적이어서 선진, 양한, 위진의 시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았다.

이들은 모두 기성문단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면모를 보인다. 관각의 문

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문단의 추이에 반발하여 새로운 시문을 지향한 제야의 문인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목릉성세의 다양성을 이룩한 것이다.

2.2. 생애와 교유의 양상

권필과 이안눌 등은 젊은 시절부터 같이 詩酒를 즐기며 학문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들은 자못 꺼리는 바가 없이 호기를 부리며 방달한 언행을 일삼기도 하였다. 西江에 있었던 兩宜堂은 이들이 독서도 하고 詩酒를 즐기던 곳인데 1590년 권필과 이안눌, 조위한 등은 선배인 車天輅와 함께 이곳에서 詩社를 결성하였다.

왕성하던 이들의 교유는 임란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권필은 강화와 호남 등지로 피난을 떠났고 이안눌은 함경도와 평안도 등지를 떠돌았다. 이안눌은 난리 전에 생부가 죽고 난리 와중에 양부가 죽어 상을 마치고서야 서울에 돌아왔고 권필 역시 임란 후에는 서울보다는 강화에 머무는 기간이 많아졌다. 1594년에 허균이 출사하고 구용도 외직에 나아간 후 1601년에 요절하고 말았으며 1599년에는 이안눌마저 벼슬에 나아가 외직을 전전하게 되면서 이들은 서로를 만나 교류할 기회를 좀처럼 얻을 수 없었다. 권필과 임진, 조위한만이 한양과 강화를 오가며 교류하였다. 그러다가 1612년에 권필이 詩禍에 걸려 죽고 1618년에 허균이 역적으로 죽임을 당하면서 이들의 집단적 교유는 사실상 끝이 난다.

그러므로 이들의 교유는 청장년기에 절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들이 자주 어울린 인물들은 성리학적 질서에서 비껴있는 인물들이었다. 권필과 이안눌이 존경하며 따랐던 鄭礎이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鄭礎은 형 鄭謙과 함께 조선의 道脈을 잇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¹²⁾

권필과 이안눌 등이 교유한 인물들 가운데는 도가적 세계관에 몰입한 인

12) “古玉少北窓二十七歲，其才識不及伯氏遠甚，而清夷沖澹，類有道者。喜吟詩，草隸亦工，旁通方藥風鑑之術，往往多奇驗。坐家累，身與世交相棄，遂託於麴蘖以逃焉。然公少從伯氏及守庵朴枝華學，通金丹祕要。中歲喪偶，不復娶，斷慾三十餘年，以老壽終，人稱爲酒仙焉。”(張維，〈北窓古玉兩先生詩集序〉，『谿谷集』 권6, 108b~c면)

물들이 많은데 권필이 젊은 시절의 절친한 친구로 이안눌과 구용과 함께 손꼽은 洪春樹와 宋耆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홍춘수와 송구는 모두 내력이 자세하지 않은 인물인데, 나이는 권필과 이안눌보다 한 세대 위로 보인다. 권필은 홍춘수를 ‘老人’이라 불렀고 이안눌은 한층 겸양하여 ‘先生’이라 부르고 있다. 조위한은 부인상을 당한 뒤 송구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홍춘수는 제가백가에 두루 능통하였으며 또한 풍수에도 밝았다. 송구 역시 丹學과 신선술에 해박한 인물이었다.¹³⁾ 허균은 송구가 단학에 조예가 깊다고 하였으며¹⁴⁾ 양생술의 비결을 가르쳐 달라는 간절한 편지를 송구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이들이 권필과 조위한, 이안눌 등에 미친 영향은 자세하지 않으나 권필이 보여주는 도가적 은일의 면모나 장자에 침잠하였던 조위한의 면모에서 이들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강화에 우거한 成輅¹⁵⁾와 宋淵, 洪至誠 등이 모두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숨어 산 인물들이다. 이들은 벼슬을 단념하고 일찌감치 은거를 선택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들이 성리학적 세계관에 큰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이들은 권필과 이안눌, 조위한 등 모두와 교류하였으나 이안눌보다는 권필과 조위한에 훨씬 가까웠다.

도가적 인물들은 권필이 끝까지 벼슬에 미련을 두지 않았던 점과 연관된다. 권필은 당시의 權要들과 교류하지 않았다. 예컨대, 柳根과 李好閔 등은 이안눌과 매우 가까워 서로 거처를 방문하거나 시문을 수창한 경우가 많다. 이호민에 대한 이안눌의 존경은 대단하여 매년 이호민의 생일에 축시를 올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권필은 이들과 그리 가깝게 지낸 것 같지는 않다.

13) “洪崖高趣在丹丘，身世悠悠生若浮。 釋也逃名醕醕醉，耆能樂道逍遙遊。”(이안눌, <奉次洪學長(春壽)贈別詩韻>, 『東岳集』 권2(朝天錄), 23b면)

14) “吾友天翁深於丹學，默契伯陽遺旨。 (...) 天翁曰：‘苟能專心於此，則飛昇不死，可立致也。’”(허균, <籟生月篋序>, 『惺所覆瓿稿·文部·一』 권4, 177d~178a면)

15) 이안눌의 고조인 이의무는 成燾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성희는 成輅에게 고조가 된다. 이안눌과 성로는 멀지만 집안끼리의 인연이 있는 셈이다.

16) 성로에게 스승이 되는 정철은 성로에게 학문, 즉 성리학 공부에 힘쓰라는 시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만 李廷龜만이 예외적인데, 이는 이정귀가 1601년에 권필을 제술관으로 추천하였기 때문이다. 이정귀는 어렸을 때 권벌과 이웃에 살았으며 권벌의 자제들과도 교유하였고¹⁷⁾ 일찍부터 권필의 文名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둘이 직접 만난 것은 한참이 지난 뒤였다.¹⁸⁾ 이는 권필이 어린 나이에 출계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정귀와 이안눌이 일찍부터 교유하였음을 볼 때 권필이 當路에 있는 이들과는 거리를 두었다는 방증이 된다.

이처럼 권필은 도가의 세계관과 상상력에 매료되었다. 권필이 평소 보여준 엄매이지 않는 처세는 정치현실과 그 이념적 근거인 성리학에 대한 반항이었다. 때문에 권필에 대한 세간의 평이 좋을 리 없었다. 이는 장유, 송시열 등이 권필의 시뿐만 아니라 사람됨을 극구 칭송하여 성리학의 경전에 밝았으며 군자의 기풍이 있었다는 점을 이상하리만치 강조하고 있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권필을 이단으로 지목하는 시선이 만연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안눌의 경우에는 단학이나 신선술, 장자 등에 몰입한 이들과의 교유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젊어서 권필, 조위한과 함께 정작을 따라 노닐었지만 이안눌의 문집에는 권필이 보여준 것과 같은 탈성리학적 면모가 부각되지 않는다. 이안눌은 시종일관 성리학적 세계관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안눌도 선가와 불가의 말을 빌려 시를 짓기도 하였으나 이는 문장을 익히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문단에서는 제자백가의 글을 읽는 것이 유행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장자가 특히 사랑을 받았다. 일례로 선조는 장자를 매우 좋아하여 전교를 내릴 때에도 장자의 문자를 쓰거나 문법을 쓰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학자들이 장자를 읽고 그 사상에 빠질까봐 과거의 論策에 장자를 인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削科하기도 하였다.¹⁹⁾ 그래서 이

17) “余少也，寓居公第之後，又與公之諸子遊。”(이정귀, <習齋集序>, 『月沙集』 권39, 42a면)

18) “始余與汝章年輩後先，未及覲面，而聞其詩則久矣。”(이정귀, <石洲集序>, 『月沙集』 권40, 159b면)

19) “先王酷喜莊子，傳教之辭，或用其語，或文法恰似，故恐學者讀而溺之，申命該曹，科場論策，禁勿用老莊。庚子歲殿試，舉人李涵冒頭用莊子語，命削去之。其後己酉，涵又登第云。”(허균, <惺翁識小錄·下>, 『惺所覆瓿藁·說部·三』)

식은 불가나 도가의 글을 문장을 배우기 위해 읽는 것은 좋지만 너무 나아가서 그 생각에 동조하여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권필 역시 성리학적 세계라 불리는 현실에 대해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당연히 도가의 세계관은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권필은 도가적 사유에 대해 관심을 지녔을 뿐 성리학적 사유를 대체할 대안으로 보지는 않았다. 권필은 이안눌보다 훨씬 더 정치적이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였다. 비록 벼슬을 포기하였으나 현실에 참여하겠다는 태도를 버린 적이 없었던 것이다.

예컨대 권필은 임란이 일어나자 그 책임을 물어 유성룡을 처벌해야 한다는 극언을 상소한 바 있고 강화에 우거할 때에는 부친을 살해한 패륜범을 올바로 처벌하지 않는 관리들을 질타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벼슬에는 나아가지 않았으나 제술관으로 국가의 외교에 참여한 바 있다. 물론 허균, 이안눌 등 절친한 친구들이 동행하였기 때문에 응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이는 문장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의지의 소산으로 보인다. 1606년에는 제술관으로 뽑혔으나 병 때문에 의주에 가지 못하여 섭섭하다는 심정을 토로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사신을 모신 한강의 모임에는 참석하여 詩才를 자랑하였다.

권필이 남긴 시들은 模擬와 寓意의 수법으로 현실을 강하게 비판한 것들이 많다. 권필의 시에는 莊子에 쓰인 수법처럼 초목과 짐승 등을 빌어 인간사를 암유한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들은 단순한 우의가 아니라 현실정치를 구체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끌어들인 수법의 결과이다. 이는 권필이 벼슬을 포기한 일개 布衣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만약 벼슬에 나아갔다면 時諱에 지축되는 이런 시를 지을 수 없었을 것이다.

즉 권필은 벼슬이 아니라 문장으로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벼슬을 버림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 공정한 말을 하기 위해서 출사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세간에서는 권필의 이런 행동에 대해 불안해하는 이들이 많았으나 권필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결국에는 정도가 지나쳐 권필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던 것이다. 宮柳詩 사건 역시 권필

의 강한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권필은 평생 우의의 수법을 빌려 정치현실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멈춘 적이 없다.

권필의 죽음에 관련된 일화는 권필의 성격과 처세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권필이 任叔英의 削科를 비판하는 宮柳詩를 지었을 때 광해군은 이를 매우 못마땅해 하였는데 결국 金直哉의 옥사에 연루시켜 권필을 잡아들였다. 광해군은 권필의 이름이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어 처벌을 놓고 고심하였는데 이때 이항복이 권필을 살리기 위해 한 말이 화근이 되었다. 즉 권필은 일개 서생에 불과하니 크게 문제 삼을 바가 못 된다고 아뢰었던 것이다. 별일 아닌 것을 가지고 크게 징벌한다면 지나치다는 말이 세간에 퍼질 것이므로 은근히 권필을 풀어주는 뜻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광해군은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여 별것 아닌 일개 서생이니 죽여도 상관없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지나칠 정도로 杖刑을 내린 후 유배를 보내게 되었고 결국 형벌을 견디지 못한 권필은 유배를 앞두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권필은 광해군의 공초에 대해 시를 지어 世事를 諷諭하는 것은 오래된 전통이므로 이런 일에 죄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권필은 벼슬에 나아가면 절대 할 수 없는 정치적 실천을, 벼슬을 포기함으로써 해낸 셈이다. 직언을 할 수는 없으나 직언보다 더 정곡을 찌르는 비판을 시를 통해 실천해낸 것이다.

오히려 벼슬에 나아간 이안눌은 이와는 달랐다. 이안눌은 승문원 권지부 정자로 벼슬을 시작하여 함경도 병마평사, 예조정랑 등을 지냈다. 초반에는 要路를 거친 셈이다. 외직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담양과 홍주 등 文翰들이 많이 거친 외직을 맡았다. 그러나 이후로는 정계의 중심에서 조금씩 멀어져 계속해서 외직을 전전하게 되었고 참관에까지 이르렀으나 文名에 합당한 문형의 자리에는 결국 이르지 못하였다. 이식이 이안눌의 행장에서 가장 안타까워 한 것이 뛰어난 문재를 가지고도 문형에 오르지 못한 것이었다. 이안눌 역시 문형의 자리에 추천되었으나 결국 문형에 오르지 못한 것을 서운해 하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이안눌 자신도 벼슬에는 관심이 없어 내외직을 막론하고 병이나 養親을

핑계로 벼슬을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안눌이 정치적 출세에 관심이 없었
다는 것은 인조반정 때에 명확하게 드러난다. 동년배이자 同榜이었던 金鑾
는 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權柄을 차지하였고 申欽, 李睟光 등도 모
두 정치 일선에 복귀하였다. 심지어 조위한도 성균관에 자리를 얻게 되었
다. 그러나 반정 후 이안눌은 예조, 형조, 호조의 참판과 승문원, 사역원의
제조로 누차 부름을 받았으나 모두 사양하고 뒤로 물러났다. 때문에 반정을
마땅치 않게 여긴다는 혐의를 받아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보면 벼슬에 나아간 이안눌이 오히려 정치현실에 대
한 반응과 실천이 오히려 권필의 치열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임란을 겪으면서 紀實에 바탕을 둔 사실적인 시를 여러 편 남긴 이안
눌은 이후 紀俗詩 이외에는 이렇다 할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작품을
남기고 있지 않다.

3. 作詩의 태도와 典範의 수용 양상

권필과 이안눌 등은 시문에 있어서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불우한 처지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시문에 대한 집착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시문에 인생을 걸었으며 스스로 일가를 이루고자 하였다.

권필은 자신의 안목을 조선 제일이라 자부한 바 있고 허균은 조선의 奎
星이 자기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였다. 이안눌은 이행을 조선 제일의 시인이
라 평가하고 자신이 그 뒤를 잇는다는 사명감에 충실하였다. 차천로 역시
마르지 않는 자신의 재주를 과장되게 자랑한 바 있다.

그러나 권필과 이안눌이 살았던 시기는 古風과 盛唐風을 좇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권필과 이안눌 역시 이러한 분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
다. 이들은 모두 선진의 고문을 열독하였고 한위, 육조의 시와 한유, 이백,
두보 등에 몰두하였다. 권필은 도잡과 이백, 두보의 시에 대한 칭송과 존경
을 보여준 바 있고 백광훈과 최경창이 唐의 영역에 들었으나 古氣가 부족
하다고 평하기도 하였다. 이안눌은 두보시에 대한 존경과 다독으로 유명하

다. 조위한과 임전도 제자백가와 漢魏의 古詩 등에 무척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조위한은 장자를 아주 좋아하였으며 사마천과 두보와 한유의 시문을 본받았다. 선진, 양한, 위진의 정수를 체득하였으며²⁰⁾ 특히 사마천의 사기와 전국시대의 변설에 깊이 침잠하였다.²¹⁾

임전은 더 나아가 전범으로 추앙되었던 소식, 황정견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두보조차 그 높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전이 전범으로 삼은 것은 한위의 시였다. 임전은 조잡한 호방을 크다고 여기고 시끄러운 것을 웅장하다고 여기고 비뚤고 험한 것을 기이하다고 여기는 짓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병으로 생각하여 힘써 배격하였다. 그래서 양주와 목적은 仁義를 어지럽히고 소식과 황정견은 風雅를 어지럽힌다고 하였다.²²⁾

이 가운데 권필, 이안눌, 조위한 등이 한유를 배우고 두보를 최고로 인정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基韓入杜’는 차천로와 이안눌이 가르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유와 두보를 배우는 것은 당대에 널리 유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권필도 처음에는 한유를 읽었으며 최경창도 기운이 시들자 만년에 다시 한유를 읽었다.²³⁾

한유에 대한 존숭은 북고의 경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한유는 古文을 짓듯이 시를 짓는 ‘以文爲詩’의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한유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시의 정형성에서 보다 자유로웠고 先秦의 고문에서 익히 쓰이는 낮설고 험박한 시어와 意境으로 시상을 전개하는 특징을 보인다. 예컨대 권필이 이안눌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 가운데 “기이한 이야기는 용을 새기는 듯 치달리고, 묘한 도는 돼지를 밟는 듯하네. 온갖 괴물이 어두운 구덩이에 모였다 해도, 밑을 내려다봄에 어찌 죽히 두려워하라. 교룡과 악어의 굳센 빨과 이빨을, 바퀴를 죽이듯 손으로 잡는다네.(奇談騁雕龍

20) “於書無所不覽，而尤好莊周氏。”(申欽，〈玄谷集序〉，『玄谷集』，175b면)

21) “才結髮，喜文章，文非先秦兩漢，不讀也。詩非開天大家數，不眠之也。其所嗜裁，最深於太史氏及戰國弘辯之說，以助其氣，以資其筆勢。”(趙綱，〈玄谷集敘〉，『玄谷集』，180b면)

22) “蓋寥其於世之粗豪以爲大，叫諫以爲雄，拗險以爲奇者，非唯不屑爲，抑亦深病而力純。故其詩嘗曰：‘楊墨亂仁義，蘇黃亂風雅。’卽其所自標置者然也。”(崔錫鼎，〈鳴皇集序〉，『明谷集』 권8，582b면)

23) 이식，〈學詩準的〉，『澤堂集』。

妙道况履豨. 百怪聚玄窟, 下觀焉足畏. 蛟鱓壯角牙, 手攬如刺蜚.”라 한 바 있다.²⁴⁾ 이 구절은 장자에서 따온 말과 함께 한유가 賈島를 진송하면서 지은 <送無本師歸范陽>의 “蛟龍弄角牙, 造次欲手攬. 衆鬼囚大幽, 下觀襲玄窟.”이라는 구절을 襲用한 것이다.

권필과 이안눌의 경우에도 복고의 경향이 감지되지만 이런 모습이 명나라의 擬古派에 의한 영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들의 문집에는 전후칠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젊은 시절부터 명의 문단 상황에 대해 매우 자세히 알고 있었던 허균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권필은 명에 다녀온 적이 없으나 이안눌은 두 번이나 명에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안눌은 명의 문단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심지어 이안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행시 일체 서적을 구입하지 않았다. 당시 명 문단의 사정에 밝았던 이들은 소수였던 것으로 보이며 윤근수, 허균, 이수광, 신희 등에 의한 명나라 문장의 수용은 이후 크게 확산되지만 권필과 이안눌의 시기에는 아직 의고 문파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²⁵⁾

권필과 이안눌의 작시와 전범의 수용은 일견 비슷해 보이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시를 제작한 과정과 결과는 사뭇 달랐다. 권필은 主筆成章 격으로 읊조리고 붓을 휘두르면 그대로 시가 되었으나 이안눌은 단련에 단련을 거듭하여 짓고 이를 다시 詩眼을 갖춘 이에게 검증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안눌의 시는 一句一字라도 古詩文에서 유래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²⁶⁾

권필은 시에 있어서 大家보다는 正宗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당이니 송이니 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古人의 법도와 합치하는 올바름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²⁷⁾ 즉 권필은 시를 통해 전달되는 뜻이 중요하다는 것, 즉 立意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24) 이안눌 시와 한유의 시의 비교에 대해서는 이종목, 『한국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339~402면 참조.

25) 일례로 박세채의 기록에 의하면 윤근수가 최립에게 명의 문장을 보여주었으나 무슨 뜻인지 해석조차 하지 못하였고 글의 수준에 대해 높지 않다고 평하였다는 것이 보인다. 실록에도 윤근수와 이호민의 문답 가운데 명의 문장이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언급이 보인다.

26) “然其一字一句, 搢擢彌日而就, 然後知公深於詩道, 非人所能及也.”(申翊聖, <東岳集序>, 『東岳先生集』(총간 78), 3d면) 搢擢은 韓愈, <貞曜先生墓志銘>, “及其爲詩, 劇目鉅心, 刃迎縷解, 鉤章棘句, 搢擢胃腎.”에서 나온 말이다.

27) 이하 권필의 시문관에 대한 논의는 정민, 『목릉문단과 석주 권필』, 태학사, 1999 참조.

한편 이안눌은 자자구구를 단련하여 고심하였는데, 이는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집착으로 보인다. 즉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컸던 것이다. 시를 지을 소재를 만나면 이를 시로 바꾸기 위해 詩語를 떠올리고 이를 엮어 구절을 만든다. 그리고 구절을 엮어 한 편의 시를 만든다. 권필은 이를 즉석에서 해치우는 반면에 이안눌은 대상을 표현할 적절한 자구를 읽고 외운 전범에서 구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런 표현이 典實해진다. 그러므로 새로운 意境이나 造語는 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안눌이 칠율을 가장 어렵다고 한 것은 이런 뜻이다. 칠율은 가장 많이 지어진 형식이며 가장 짓기 쉽다고도 알려져 있다. 이를 가장 어렵다고 한 것은 수없이 많이 지어진 전범 가운데서 새로운 전범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필은 스스로 正宗이고자 했기에 일정한 전범을 두지 않았다. 물론 도연명, 이백, 두보의 삶과 시를 칭송하고 그들을 본받고자 하였으나 그 어느 하나를 닮지는 않았다. 이백의 고풍을 본받아 古意를 살리기도 했고 백거이를 본받아 현실을 풍유하는 시를 짓기도 하였다. 두보의 傷心憂國하는 마음을 자조적으로 풀어낸 감상적인 시들도 많다.

이안눌은 이와는 달리 이행을 전범에 두었고 이에 이르기 위해 두보를 배웠다.²⁸⁾ 이안눌이 다독과 숙독을 통해 공력을 쌓고 이를 통해 자구를 단련한 것은 곧 이행을 先示한 작법이었다. 이안눌은 즉 젊어서 古體와 絕句를 배운 뒤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자 이를 버려두고 오로지 율시만을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았다. 흔히 알려진 대로 두보시를 만삼천독한 것이 아니라 두보의 율시를 만삼천독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안눌은 시의 내용뿐 아니라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양식에도 매우 집착하였다. 김상헌이 이안눌의 시 가운데서도 근체시가 뛰어났다고 칭송한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다.

권필은 각체에 두루 능하였으며 풍격에 있어서도 沈着, 雄健, 淸圓 등 다양한 시격을 모두 보여주었다. 반면에 이안눌은 대부분 雄健, 豪放의 미감으로 품평을 받았는데 淸圓한 풍격에 있어서는 모자람이 있다는 평을 얻었다.²⁹⁾

28) 이안눌은 스스로 “나는 나의 조상 용재 선생을 스승으로 삼을 뿐이다.(송시열, 묘지명)”라고 하였으며 詩名은 두보와 친하고자 했다.(정홍명, 만사)

29) 허균은 『惺叟詩話』에서 이안눌에게도 淸圓한 시가 있음을 예증하였으나 이는 거꾸로 이안

권필은 시를 완성하는 수법의 우열이나 高下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여겼다.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추어 다양한 양식과 체재를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오칠언, 절구와 율시, 고시와 잡체시 등 다양한 체재를 이용하여 시상을 전개하였고 여운이 깊고 성률이 맑은 성당풍뿐만 아니라 고고하고 위약한 느낌을 주는 만당풍도 기꺼이 수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李春英의 평가가 도움이 된다. 이춘영은 권필과 이안눌, 허균의 시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각각 枯, 滯, 饒의 평을 덧붙였다.³⁰⁾ 권필은 시들었으며 이안눌을 막혔고 허균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권필의 枯는 그 내용의 우울한 분위기에서 나온 평으로 보인다. 세상과 불협하는 심사가 어느 시에서건 드러나게끔 作詩한 권필의 시에서는 艷麗하고 富贍한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淸圓한 풍격의 시에서도 쓸쓸한 悲調를 이면에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안눌도 권필의 시가 萎弱하다는 평을 내린 바 있다.

이안눌의 滯는 풍격이 지나치게 하나로 집착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안눌의 단련은 오히려 자유롭게 시를 쓰려고 하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기능이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허균과 권필이 이안눌의 시를 평하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고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버려야 하는데 이안눌은 오로지 단련에만 힘써 편마다 뛰어나려고 하여 奇巧하게 하려고 하는 병폐 때문에 시가 점점 나빠진다고 하였다.³¹⁾ 단련을 통하여 완벽에 가까운 조직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시가 본래 전달해야 하는 氣와 意를 놓칠 수 있다는 조언이다.³²⁾

권필과 이안눌이 보여준 상이한 풍격과 작법의 차이는 그 자체만으로는 우열을 논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시각에서 그 문학적 성취에 대한 논의는

눌의 시가 淸涼한 풍격과는 거리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30) “足下眼空一世，無少許可，而獨稱吾三人，幸卑之無甚高論以僕爲飢也。以石洲爲枯也，以子敏爲滯也。此三病，何以砭之？足下，今之和扁也，須以良方治之。至幸。”(허균, <與李實之丁未六月>, 『惺所覆瓿藁·文部·尺牘·上』 권20, 311c면)

31) “汝章言子敏詩漸落，信矣。(…)若篇篇有意於巧，則力費而辭蹟，反歸於澁僻，此大家所深忌也。子敏有意於奇巧太甚，故未免費力而驚思於勞索之域，宜其乏風調少藻思，漸圓而漸落也。老兄亦戒之。”(허균, <與許兄子賀>, 『惺所覆瓿稿·文部·尺牘·下』 권21, 312c면)

32) 허균의 경우에는 박학다식을 바탕으로 부성한 말을 만들기 좋아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사>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보여준 다양한 면모가 이 시기의 복고와 성당 지향이라는 큰 문학사적 경향과 만나는 양상이다. 이들은 모두 두보의 시를 높은 경지로 인식하였으나 권필은 두보의 정신을 배우고자 하였고 이안눌은 두보의 수법을 배우고자 하였다고 하겠다.

이 시기에 이르러 ‘격’에 대한 논의가 왕성해지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즉 강서시파를 비판하거나 古風을 모의하는 것 등에 있어서 ‘격이 낮다’는 평이 자주 발견된다. ‘격’은 시의 ‘풍격’을 가리키지만 이는 시인의 자질 및 정신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전에도 이백과 두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으나 이 시기에 이르면 두보를 단순히 시를 가장 잘 지었던 시인으로 이해하는 태서 벗어나는 모습이 보인다. 이백과 두보는 삶의 궤적과 시의 내용, 형식의 운용 등이 합일되었기 때문에 높은 문학적 경지에 오를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격’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결과로 보인다.

4. 결론

본고는 권필과 이안눌을 중심으로 당대 문단의 교유 양상과 문학 활동을 살펴 복고와 성당으로 대표되는 문학사적 양상 내부에 다양한 특징들이 공존함을 밝히려 하였다. 한시는 전범으로부터의 영향과 형식적 제약이 매우 강하지만, 그 내부에서 시인의 개성에 따른 수법의 취사선택과 풍격의 지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제약과 자유의 긴장 관계가 한시라는 갈래가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였을 것이다.

권필과 이안눌 모두 과거의 시문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으나 이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의 시를 쓰려고 한 시인들이다. 권필은 이를 위하여 현실로부터 취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자구의 이면에 숨기는 기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였고 이안눌은 자신의 목소리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과거의 전범에서 찾아내고 그것들을 유의미하게 재조직하고 병치함으로써 자신만의 응혼하고 침중한 풍격을 지향하였다.

비록 두 사람이 이룩한 시의 양상은 다르지만 시 짓는 것은 평생의 과업으로 여겼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점에 있어서는 공통된다 하겠다. 노력의 과정과 수법이 다르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도달하고자 하였던 것은 일가를 이룬 ‘시인’이라는 명성이었고 그 노력은 충분한 결실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권필과 이안눌의 시는 상호 경쟁과 격려의 과정에서 모두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었다. 이들의 시가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둘의 友誼가 그만큼 깊었기 때문일 것이다. 권필이 죽은 뒤 이안눌은 만날 수만 있다면 자기도 따라 죽고 싶다고 하였다.³³⁾



33) “欲見復欲見，欲見吾所思。死去儼相見，何用獨生爲。雨蕭蕭月皎皎，益使心傷悲。”(이안눌, <嗚呼謠> 제1수, 『東岳集』 권10(錦溪錄), 160c면)

참고문헌

具容, 『竹窓遺稿』, 국립중앙도서관장본.
權輶, 『石洲集』(한국문집총간 75), 민족문화추진회.
綾城具氏大同譜編纂委員會 編, 『綾城具氏世譜』,綾城具氏大宗會, 2002.
李安訥, 『東岳集』(한국문집총간 78), 민족문화추진회.
李廷龜, 『月沙集』(한국문집총간 62), 민족문화추진회.
李種奭 編, 『德水李氏世譜』(增補 9판), 德水李氏世譜刊行委員會, 2001.
任鍾, 『鳴皋集』, 국립중앙도서관장본.
張維, 『谿谷集』(한국문집총간 92), 민족문화추진회.
趙緯韓, 『玄谷集』(한국문집총간 73), 민족문화추진회.
許筠, 『惺所覆瓿稿』(한국문집총간 74), 민족문화추진회.

김상일, 『동악 이안눌 시연구』, 보고서, 2000.
李鍾默, 『해동강서시과 연구』, 태학사, 1995.
_____,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鄭珉, 『목릉문단과 석주 권필』, 태학사, 1999.

구본현, 「이안눌의 동원과 시단에 대하여」, 『한시작가연구』 9, 한국한시학회, 2004,
137~160면.



The Companionship and Literature of
Gwon Pil(權驥) and *Yi An-nul*(李安訥)

Gu, Bon-hyun

Gwon Pil(權驥) and *Yi An-nul*(李安訥) were the most famous poets in *Mongneungseongse*(穆陵盛世). They has kept company with each other from young ages. Their families were both famous, because their ancestors were great poets & writers. In *Andong Gwon Family*(安東權門), *Gwon Geun*(權近) and *Gwon Byeok*(權擘) were great writes. *Yi Eui-mu*(李宜茂), *Yi Haeng*(李荇) were also famous poets in *Deoksu Yi Family*(德水李門). Two families were noblest in early *Joseon* dynasty, but had declined in 16th century.

Gwon Pil and *Yi An-nul* applied for *Gwageo*(科擧) in young ages, but both failed. *Gwon* has never applied again, but *Yi* passed in 1599. *Yi* spent all life as civil officer from that time.

Gwon and *Yi* criticized *Songsi*(宋詩) and recognized *Seongdangsi*(盛唐詩) as a good model together, but their poetical style and technique were so different. *Gwon* studied all of poetical style, not discriminate *Dangpung*(唐風) and *Songpung*(宋風). *Yi* was so eager for studying *Hanyu*(韓愈) and *Dubo*(杜甫). And he devoted himself to training poetical techniques. Critics of those days criticized that *Gwon*'s poetry were too dry, and *Yi*'s poetry were too monotonous.

But *Gwon* and *Yi* succeeded to make new poetic styles, so it is obvious that they were important poets of *Mongneungseongse*.

Keywords : *Gwon Pil*(權驥), *Yi An-nul*(李安訥), *Mongneungseongse*(穆陵盛世),
Dangpung(唐風), *Songpung*(宋風), *Hanyu*(韓愈), *Dubo*(杜甫),
Haedonggangseosipa(海東江西詩派), poetical style

접수일자 : 2006. 3. 31
심사기간 : 2006. 4. 7~2006. 4. 28
게재결정 : 2006. 5. 16

KCS I

КСІ